

重義性的 諸樣相과 檢證法에 관한 小考

具 滋 銀

英語英文學科

(1985. 9. 27. 접수)

〈要 約〉

인간이 가진 言語能力을 판단하는 하나의 尺度로 重義성이 있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현상이다. 순수 언어적인 측면에서 重義성은 音聲的, 語彙的, 文法的 重義성의 세가지 形態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언어이론이 論理學과 言語哲學을 도입하고, 동시에 話用的 機能과 인간의 심리적 認識過程까지도 기술하려 함에 따라 重義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本考에서는 우선 발생원인에 따른 重義성의 諸類型을 문제점과 더불어 고찰하고, 다음으로 模糊性과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重義성 諸檢證法을 의미와 통사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며, 끝으로 音調나 언어적 文脈등에 의한 重義성 해소방안등을 살펴보려 했다.

그 연구 결과를 간단히 要約하면, i) 발생 원인별 重義성의 諸類型들 가운데는 언어 사용자의 言語(또는 遂行)能力的 부족이나 發話의 특별 文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言語一外的인 重義性이 설정·포함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고, ii) 重義성과 모호성을 구분시켜주는 검증법중 'do-so' test의 交叉解釋과 관련된 학자들 간의 심한 의견차이는 重義성의 定義 및 언어 直觀上的 차이가 주요한 원인이 되겠으나, 부분적으로는 'do-so' test 그 자체와 '중의성과 모호성이란 두 언어현상은 자연언어가 그 特定事項을 省略한데서 흔히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함을 볼 수 있었다.

A Study on Some Aspects of Ambiguity and Its Tests

Koo, Ja-Eu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September 27, 1985)

〈Abstract〉

Ambiguity, one of the barometers of judging one's linguistic competence, is a linguistic condition which can arise in a variety of ways. From a purely linguistic point of view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ambiguity; phonetic, lexical, and grammatical. However, from the tendencies in present-day linguistic theory that attempts not merely to introduce logic and linguistic philosophy but to describe the pragmatic function and even the mental process arise far more complex types of ambiguity.

In chapter II, a study on some types of ambiguity based on its sources is carried out with brief comments on some problems. In chapter III, a number of tests used by linguists to distinguish ambiguity from vagueness are described and illustrated, with brief critical commentary. The tests appeal to semantic and syntactic principle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ests using transformations whose applicability depends upon identity of sense. Besides, in chapter IV, an attempt to resolve ambiguity is made on the basis of intonation patterns and (linguistic) contexts including word order, punctuation, underlining, contraction, coindexing, etc..

(8a, b)는 主語의 태도이나, 話者의 태도이나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형용사 'crazy'와 'furious'의 특성에 있는 것 같다.⁽⁵⁾

II.3 統辭的 重義性(syntactic ambiguity): 문장의 중의성은 문장구조에 의한 경우와 문법의 형태나 기능에 의한 것이 있는데, 前者는 다시 IC分析이 가능한 것(multiple surface structure)과 그렇지 않은 것(single surface structure but different deep structure)으로 분류된다. 편의상 이를 순서대로 structural/transformational/grammatical ambiguity로 각각 칭하여 검토해 보겠다.

II.3.1 Stageberg(1967)는 IC分析이 가능한 structural ambiguity의 유형을 20여종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삼아 일부만 살펴보자.

- 1) 형용사+소유격명사+명사: the stout major's wife
- 2) 형용사+명사+명사: 그 미련한 과장과 제장이 일을 망쳤다.
- 3) 수식어+p.p+명사: steep pointed gables
- 4) 명사+명사+명사: 나는 철수와 영호를 죽였다.
- 5) 피수식어+수식어+피수식어: 선생님이 보고싶은 학생이 많다.
- 6) 동사+부사 or 수식어: He looked over the fence.
- 7) 피수식어(modificand)+삽입어+수식어:
Every child awaits the time he can go to school with excitement.
- 8) ing형+명사⁽⁷⁾: They were entertaining women.
- 9) 피수식어+두개의 수식어群:

① a spotted dog in the group barking at the car(동사구)

② the dog on the porch with the battered look(전치사구)

③ Robert found the money he had lost in the Street(부사구)

- 10) 어휘의 생략에 의한 중의성:

I like my roommate as well as John.

II.3.2 transformational ambiguity: IC分析이 가능한 중의성과는 달리 句構造階層(phrase structure level)에서는 중의성이 없으나 變形에 의해서 중의적이 될 수 있다.

- (9) a. We deplore the shooting of the hunters.(hunter가 shoot의 주어/목적어)
- b. It is the love of God which inspires men to work for their fellows.(God가 love의 주어/목적어)
- c. The man was good to leave.(the man이 leave의 주어/목적어)
- (10) a. Flying planes can be dangerous.(현재분사/동명사)
- b. Visiting professors can be dangerous.(현재분사/동명사)
- (11) a. a sloppy typist(one who types sloppily, one who is sloppy and who is a typist)
- b. a lazy janitor(one who maintains premises lazily/one who is lazy and who is a janitor)

(9a)는 각기 다른 심층구조 "The hunters shoot"와 "They shoot the hunters"에서 서로 다른 변형을 거쳐 파생된 것이며, (10a)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형용사류로 사용된 현재분사나, 아니면 명사류로 사용된

- (5) 어 1) a. She was *happy* to do it.
b. They were *overjoyed* to have been there.
- 어 2) a. She was *right* to do it.
b. They were *foolish* to have done it.

어 1)은 주어의 태도를, 어 2)는 화자의 태도를 각각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crazy, furious의 경우는 양자가 모두 가능하며, happy의 경우도 일인칭, 현재시제와 共起하던 중의성이 생긴다.

어 3) I am *happy* to do it.(satisfaction/willingness to proceed to the doing)

(6) Stageberg(1967), "Some Structural Ambiguities," Graham Wilson ed., *A Linguistic Reader*, pp.76-85.

(7) 구조 8)은 위와 같은 '수식어+명사' 및 '동사+명사목적어'의 구조 외에 '형용사+명사' 및 '명사+명사'의 구조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IC分析이 불가능하므로 變形的 중의성(transformational ambiguity)에 귀속시켜야 한다.

예) Smoking room, dancing girl, standing committee, visiting professors

참고) Food poisoning is bad. (N₁ caused by N₂ in N₁=식중독/N₂ in N₁=독을 넣는 것)

동명사냐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며, 동시에 'plane'의 多意性에 의한 lexical ambiguity도 共起한다. 한편 문장 (11)의 경우 그 명사는 동사류에서 파생된(deverbal)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가지 의미해석 가운데 前者의 의미가 더욱 수용성이 높다고 보겠다.⁽⁸⁾

II. 3.3. 문장을 이루는 구성소 상호간의 文法關係 및 機能, 동사의 時制, 그리고 대명사의 상호지시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grammatical ambiguity는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文法上的 형태소에 의한 중의성은 접미사 -able의 차이(desirable/knowable), 접두사 in의 차이(inborn, inflame/inexperienced, inconclusive), 數의 차이(Will you join us for dinner tomorrow?), 時制의 차이(They hit the ball)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동사가 [+human]의 속성을 지닌 명사를 주어로 가질 때는 意圖性(intentionality) 유무에 따라 중의적일 수 있다.

(12) a. John cut his arm with a knife.

b. John _____ a knife and so did Harry.

Lakoff는 (12 a)가 주어의 의지(volition) 여부에 따라 intentional/non-intentional의 중의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b)의 문장에 'do so' test (=identity 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交叉解釋(crossed reading)⁽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는 의도성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사실에 근거한다.

"Lakoff cites one language, Cupeno, that appears to distinguish intentional from non intentional understandings by morphological means, thus offering the defense that the differentia between the understandings of sentence(12) is not implausible."⁽¹⁰⁾

(13) a. These flowers reminded me of my mother's funeral.

b. She reminded me of my mother's funeral.

c. She reminded me tactfully of my mother's funeral.

(13 a)는 주어가 action을 수행할 수 없고, 따라서 동사는 'trigger into consciousness'의 [-active] 기능을 갖게 되며, (b)는 주어가 'action'이 가능하므로 동사가 두 가지 기능([-active]/[+active] = [+volition])을 가져 重義的이 된다. 한편 (c)는 양태부사(manner adverb)인 tactfully, boldly, carefully 등의 출현으로 action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14) a. He had a car run over him.

b. John bumped his head on the ruffers. (Agent/Experiencer)

c. This coat is warm. (Patient/Instrument)

(14 a)의 경우 주어 he가 Agent와 Patient 중 어느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중의적이 된다. 한편 동사의 時制相에 의해서도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15) a. I'm taking Mary out for a meal. (현재진행/미래)

b. His train leaves at five o'clock. (future reading = _____ at 5 o'clock tonight/habitual present reading = _____ at 5 o'clock every day)

c. By sunrise the laborers were making their way to work.

(15 a)의 경우 'time adverb'가 없으면 중의적이 되고, (c)의 경우 'frequency adverb'가 없으면 습관

(8) Dillan(1977),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Linguistic Semantics*, p.60.

위와 같은 중의성을 피하기 위해 불어의 경우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가 명사앞에 위치한다.

예) Vieil ami: friend of long standing

Ami Vieil: aged friend

(9) Lakoff, "A Note on Vagueness and Ambiguity," *Linguistic Inquiry* 1970, p.357. 'do-so' test와 交叉解釋에 대한 설명은 III.2.2의 4) 부분을 參照바람.

(10) Zwicky and Sadock(1975), "Ambiguity Tests and How to Fail Them," in *Syntax and Semantics Vol. 4*, ed. J.P. Kimball (New York: Academic Press), p.31.

학자에 따라 (12 a)는 두개의 서로 다른 물리적 행위, 즉 1) John's nicking(베이다) his arm while peeling potatoes 와 2) John's gouging(칼대다) his arm to the bone의 중의성만이 존재한다고 하며, Zwicky/Sadock은 Lakoff의 두 의미와 위 1)과 2)의 두의미를 합쳐 4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적(=an event regularly repeated on each work day)/비습관적(=a single act of going to work)의 미를 가질 수가 있다.

한편 (인칭/관계/재귀) 대명사가 통사구조상 하나 이상의 指示對象(referent)을 가질 때 관련 대명사는 ‘coreferential ambiguity’⁽¹¹⁾라는 중의성을 갖는다.

- (16) a. The player told the umpire that **he** had made a mistake. (the player/the umpire)
 b. It is the beginning of the speech **which** is important. (the beginning/the speech)
 c. The wire made the contact **itself**⁽¹²⁾. (the wire/the contact)

II.4 適用範圍의 重義性(scope ambiguity): 중의성은 期間副詞부(duration adverbial), 접속어(connective), 수량사(quantifier) 및 부정소(negative)의 適用範圍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며, 부권단사 ‘a(an)’에 따른 de re 해석과 de dicto 해석의 공존에 의해서도 정될 수가 있다.

II.4.1 duration adverbial은 통사의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결과 중의성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 (17) a. He went to New York for two weeks.
 b. He made the horse eat it for two hours.
 c. The sheriff jailed Hood for 4 years.

(17 a)의 ‘go to N’은 ‘be at/in N subsequently’를 함의하고 있고 통사에 ‘COME ABOUT to be AT/IN N’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a)는 “HE BE IN NEW YORK COMES ABOUT”라는 意味構造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期間副詞 ‘for two weeks’의 수식을 받는 scope는 ‘be in New York’이 될 수도 있고, ‘comes about’부분이 될 수 있어 1) ‘duration-of-result’ reading=went to N.Y. to stay for 2 weeks와 2) ‘iterative’ reading=for 2 weeks made trips to N.Y.의 의미로 重義的이 된다. (b)의 경우 사역동사 ‘make’는 go/stop 등의 起動動詞(inchoative)⁽¹³⁾와 마찬가지로 ‘COME ABOUT’같은 기동동사의 구성소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duration-of-result’/‘iterative’ reading이 가능하게 된다. (c)의 경우는 위 두 가지의 의미외에 ‘duration-of-activity’ reading(=A spent 4 years bringing it about that B was in jail)의 의미도 가능하다. 한편 단순부사에 의한 ‘scope ambiguity’도 또한 가능하다.

- (18) a. He nearly/almost went to New York.
 b. John has only/even/just killed a duck.

(18 a)는 1) ‘but changed his mind’-‘nearly left’와 2) ‘but got off at Hoboken’-‘went nearly to N.Y.’의 두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 only, even, just 등의 경우 그 부사가 주어 앞에 올 때는 통사구조상으로 주어에 意味制限을 가해주지만, (b)같은 경우는 對照強勢를 어느 것이 받느냐에 따라 중의성을 갖게 된다.

II.4.2 文章接續(sentential conjunction)이나 句接續(phrasal conjunction)이나에 따라 중의적일 수 있다.

- (19) a. He shaved and listened to the radio. (동시행위/전후행위)
 b. 철수와 영희는 춤을 추었다.⁽¹⁴⁾

(11) Leech(1981, p.163)는 문장내에서 대명사의 상호지시 관계(co-reference)가 가능한 것만을 중의성으로 규정하고, 언어외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referential indeterminacy’로 규정했다. 이는 Lyons(1977, p.398)의 주장과 뜻을 같이 하는데 그는 전자를 linguistic 한 것으로, 후자를 non-linguistic 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 Ann told her sister to fetch **her** purse. (her=Ann/her=her sister/her=제 3자의 경우)

(12) 우리말의 경우는 재귀대명사와의 경우 중의성이 없고, 대명사와 경우만 중의적일 때가 있다.

예) a. 철수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자기=철수)

b. 철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그=철수/그≠철수)

(13) 起動動詞: 주어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로 fade, grow, start, stop, faint, lose, reach 등이 이에 속한다.

예) He read/shovelled snow for 2 wee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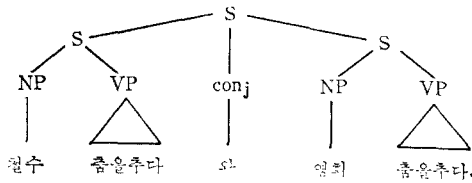
참고) 위 예문 (17 c)의 경우 jail=“CAUSE to COME ABOUT to BE AT”으로 풀이된다.

(14) 그는 접속문이 모두 중의적인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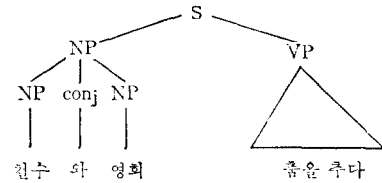
a. 철수와 영희는 원명하다. b. 철수와 영희는 달았다.

‘원명하다’는 개개의 자질이기 때문에 구조도 b’와 같이 문장접속의 의미만이 가능하고, ‘달았다’는 구조도 b’와 같이 구접속의 의미만이 가능하다.

b'.



b''.



論理學者들은 離接語 “or”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여, V(=inclusive or: 兩立的選言)와 Λ(=exclusive or: 排他的 選言)으로 구분하고 있다. (15)

(20) a. You can boil an egg *or* you can make some sandwiches.

b. He will die *unless* we operate. (though he may even if we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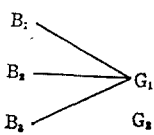
c. *If* we don't operate, the patient will die. (exclusive reading=수술하면 생존가능하다. / inclusive reading=수술하면 생존가능하나 수술해도 죽을수 있다.)

‘or’는 접속되는 두 대안의 내용이 그 양자의 대안을 동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排他的인 해석이 보통이며, 이 경우 선호도가 더 높은 대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배타적 해석의 일반성은 unless 와 if 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한편 節의 내용이 허용한다면 (20)의 경우처럼 양 대안의 동시적 결합을 뜻하는 兩立的 解釋 또한 가능할 수 있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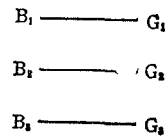
II.4.3 生成意味論에서는 문장의 기저구조 의미포시를 論理構造로 보고 量化(qualification)의 論理的概念을 도입하고 있다.

(21) All the boys kissed a girl.

a.



b.



(21)은 수량사의 적용범위로 인한 論理構造上的 차이가 발생하여 중의성을 피게 된 例이다. 前者 (a)는 양화사 all이 narrow scope를 가진 경우이며, 후자 (b)는 wide scope를 갖게 된 경우인데 이를 논리구조로 나타내면 각각 다음 a'와 b'가 된다.

a'. There is a girl that all who were boys kissed.

$\exists y \forall x ((\text{BOY}(x) \ \& \ \text{GIRL}(y)) \rightarrow \text{KISS}(x, y))$ (17)

b'. For all who were boys there was a girl that they kissed.

$\forall x \exists y ((\text{BOY}(x) \ \& \ \text{GIRL}(y)) \rightarrow (\text{KISS}(x, y)))$

(22) a. I read some book every morning.

b. 나는 책 한 권을 매일 아침 읽는다.

a' Every morning I read some book.

b' 매일 아침 나는 책 한권을 읽는다.

(22 a, b)의 두 문장은 ‘매일 아침 읽는 책 한권(e. g. bible)이 있다’와 ‘아침마다 한권씩 읽는다’고 하

(15) Dillan(1977), p.93.

(16) 접속되는 절의 내용에 따라 排他的해석만이 가능할 수 있다.

예 1) Either John *or* Harry will win. (winner는 한 사람뿐이니까.)

2) *Unless* you eat your dinner, you'll get no desert. (desert는 식후용이니까)

(17) 論理式을 읽어보면: For some y, for all x, if x is a boy, and if y is a girl, x kissed y. 문장 (21)의 의미차이는 논리구조에서 수량사의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되는데, 이는 “The first quantifier has the next under its scope.”의 규약에 근거한다. *For more specified and developed information, see “Some Universals for Quantifier Scope” by G. Ioup in *Syntax and Semantics 4* (1975).

는 意味解讀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사이동변형이 적용되어 파생된 (a')와 (b')는 後者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II.4.4 문장의 완전한 의미표시물 기저구조의 論理形態(logical form)로 규정하면 모든 부정문에는 not의 적용범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¹⁸⁾

(23) a. John kissed Mary.

b. John didn't kiss Mary.

단문 (23a)와 그 부정문 (b)를 논리형태로 기술하면 각각 (a')와 (b')로 표시할 수 있다.

a'=((JOHN(x)) & (MARY(y)) & (KISSED(x,y)))=One is called John and one is called Mary and he kissed her.

b'=(-(JOHN(x)) V-(MARY(y)) V-(KISSED(x,y)))=x isn't called John or y isn't called Mary or they didn't kiss (or some or all of these)

["V"=inclusive or: "-"=not]

따라서 (b)는 다음의 7가지 해석이 가능하다.⁽¹⁹⁾

i) One kissed one called Mary, but he wasn't called John.

(not의 범주=주어)

ii) One called John kissed one, but she wasn't called Mary.

(not의 범주=목적어)

iii) One called John and one called Mary were not in a kissing relation.

(not의 범주=동사)

iv) One kissed one, but he wasn't John and she wasn't Mary.

(not의 범주=주어와 목적어)

v) One is called John, but he didn't kiss one and she wasn't called Mary.

(not의 범주=동사와 목적어)

vi) One is called Mary, but she wasn't kissed by one and he wasn't called John.

(not의 범주=주어와 동사)

vii) One wasn't John, and one wasn't Mary and he didn't get into a kissing relation with her.

(not의 범주=주어, 목적어, 동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John kissed Mary"의 眞理條件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僞가 되면 진술전체가 거짓이 된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것이 바로 否定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속에 구성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僞가 될 수 있는 전리조건이 많아 더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한편 부정소 not가 낱말을 이루고 있는 구성소 즉 意味資質(semantic feature)에 작용할 경우는 사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24) a. John didn't murder Mary.

b. Leslie isn't a bachelor. (-unmarried/-male/-adult)

즉 (24a)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7가지 해석의에 부정소가 'murder'의 의미구성소인 'INTENTIONALLY CAUSE (to) DIE'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추가될 수 있다.

viii) He killed her, but he didn't mean to.

ix) She died, but he didn't cause it.

(18) 문장 "The A is not B"가 ambiguous한가 혹은 vague(=non-specific)한가는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즉 Davidson, Harman, Strawson 및 Russel은 기저에 두개의 서로 다른 논리형태를 가진 종의적인 문장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Kempson이나 Atlas 등은 vague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예) The King of France is not wise.

Russel에 의하면 위의 예문은 두개의 논리형태를 갖는다.

a. The King of France is "non-wise." (narrow-scope predicate negation)

b. It's not true that the king of France is wise. (wide-scope sentence negation)

Russel은 (a)의 논리형태는 "there exists a King and he is a unique"를 숨겨놓고 있지만, (b)의 논리형태는 그 어느 것도 함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 Dillan(1977), p.84.

x) He tried to, but she didn't die.

否定素의 scope는 통상 부정어 그 자체에서부터 절의 끝이나 혹은 최종 부가어(adjunct)의 앞까지 확대되어짐이 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 부정소 not의 좌측에 있는 주어나 부가어등은 除外된다.

(25) $\overbrace{\text{I didn't leave home because I was afraid of my father.}}^a$
 $\underbrace{\hspace{15em}}_b$

(25 a)의 경우는 개개의 절에 각각의 'tone unit'가 배당되어 because 절은 부정의 범위 밖에 위치하며, (b)의 경우는 양자의 절을 합쳐 하나의 억양을 부여하고 father 위에 對照強勢를 가하여 because 절에 negative focus를 위치시킴으로써 主節은 긍정으로 이해되어지는데, 그 의미해석은 곧 다음 (a'), (b')와 같다.

a' = Because I was afraid of my father, I didn't leave home.

b' = I left home, but it wasn't because of my father that I did so.

그런데 경상적인 상황에서 부정소 not에 가장 취약한 구성소는 부사(구)인 것 같다.⁽²⁰⁾ 그 결과 (26a, b)의 일반적인 해석은 (a'), (b')가 된다고 하겠다.

(26) a. I haven't seen him for 3 years.

b. She hasn't polished the table very nicely.

a' = I have seen him [but not for 3 years]

b' = She has polished the table [but not very nicely]

그러나 좌측에 있는 主語등에 약하고 우측에 있는 부사 또는 부사구에 강한 否定素의 성향도 대조강세가 더해지면 완전히 그 意味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事實에 근거를 두고 있다.

"...because the effect of contrastive focus in a negative sentence is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negation so that only the element which receives the nuclear stress is affected by it (=negation)."⁽²¹⁾

(27) a. $\overbrace{\text{All cats don't like water.}}^{\hspace{10em}}$ (=All cats dislike water)

b. $\overbrace{\text{All cats don't like water.}}^{\hspace{10em}}$ (=Not all cats like water)

(28) a. $\overbrace{\text{I wasn't listening all the time.}}^{\hspace{10em}}$ (It is not true that I was listening all the time)

b. $\overbrace{\text{I wasn't listening all the time.}}^{\hspace{10em}}$ (=For the whole, I wasn't listening)

II.5 指示와 指示對象 사이의 중의성은 不特定 指示 名詞句(indefinite referential Np)가 불투명 맥락(opaque environment)때문에 특정한(specific) 대상을 칭하는지 불특정한(unspectific) 대상을 일컫는지 분간할 수 없는데서 발생할 수 있다.

(29) a. John married *a dancer* with blue eyes.

b. John wanted to marry *a dancer* with blue eyes.

(29 a)의 'a dancer'는 'any dancer'라기 보다는 'a specific dancer'를 지칭하는 de re 解釋⁽²²⁾만을 받

(20) Leech(1981), p.298. "The feature most vulnerable to negation in many instances seems to be a downgraded modifying predication(=adverb or adverbial phrases)"

(21) Leech(1981), p.293.

(22) 전통적으로 언어철학에서는 아래 예 1)과 같이 목적어의 外延(extension)에 속하는 개체가 있음을 含意하는 경우를 de re 의 해석이라 보아왔고, 예 2)의 경우처럼 그 목적어의 外연에 속하는 개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含意하지 않는 경우를 de dicto 의 해석으로 보아왔다.

예 1) a. John is catching *a unicorn*.

b. John found/saw *a red brick*.

예 2) a. John is looking for *a unicorn*.

b. John sought *a red brick*.

c. *John's murderer* must have been insane.

d. I'll flunk *the third person* from the end of the row.

e. Everyone in the room loves *some pop-star*.

고, (b)의 'a dancer'는 'any dancer'를 가리키는 de dicto 해석도 가능하여 重義性이 발생하게 된다. de re/de dicto 해석에 따른 이러한 중의성은 주격동사의 성질에 起因되는데, Givon(1973)은 불투명 맥락을 야기하는 동사의 유형에 대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²³⁾

1) 相을 나타내는 동사(modality verb): 문장 (29 b)의 'want'처럼 時制相을 나타내고 主節의 主語와 동일한 주어를 갖는 補文을 취하는 동사를 칭하며 이것은 도표 (1)과 같이 下位 分類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指示對象의 重義性이 발생하는 것은 nonimplicative verb의 경우이다.

도표 (1)

implicative	neg-implicative	non-implicative
begin, finish, continue, manage,...	fail, forget, neglect, avoid,...	want, decide, plan, agree, try, hope,...

2) 強要—操作동사(coercive-manipulative verb):

도표 (2)

implicative	neg-implicative	non implicative
force, make	prevent	permit, allow, forbid, persuade, order, ask,...

(30) a. He made the child read *a book*. (특정적)

b. He prevented the child from reading *a book*. (불특정적)

c. He permitted the child to read *a book*. (특정적/불특정적)

3) 認知動詞(cognitive verb): 認知동사는 그 前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事實동사는 補文의 眞인술, neg-factive verb는 補文이 僞인술, non-factive verb는 보문의 眞/僞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를 가진 事實동사는 特定的인 뜻만을 갖고 neg or non-factive verb는 重義的이다.

도표 (3)

factive	neg-factive	non-factive
know, realize, remember, forget,...	pretend, assume,...	think, believe, hope, doubt, be sure,...

(31) a. He knew that the child had read *a book*. (특정적)

b. John pretended that he saw *a book*. (특정적/불특정적)

c. He believed that the child had read *a book*. (특정적/불특정적)

II.6 지금까지 발생원인에 따른 重義性의 諸類型을 살펴 보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타까지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32) a. I saw her *duck*.

b. I am going to read the book *in* two days.

透明動詞(transparent verb)를 가진 예 1)은 구정소의 하나인 unicorn의 외연이 空集합이 되지 않고, unicorn이라는 속성을 지닌 어떤 개체가 있을 때에만 眞이 될수 있는데 반해서, 불투명동사를 가진 예 2)는 그 외연이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According to Palmer(1981, p.192), the referential use(=de re reading) is concerned with extension in the real world; the attributive use(=de dicto reading) is concerned with the description itself, with the intension of the expression and with its extension only in possible worlds.

(23) T. Givon(1973), "Opacity and Reference in Language" in J.P.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2* pp.96-103.

c. The girl sought a book on Main Street.

위의 문장들은 흔히 lexical ambiguity(i.e. duck, in, on)와 syntactic ambiguity가 共存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흔히 전치사에는 名詞類의 기능을 表示하는 의미기능(role-marking sense)이 있음이 一般的인데, (b)의 경우에는 전치사 'in'에 따른 lexical ambiguity 즉 '어떤 행위가 發生할려는 未來의 時間'(~이 지나면 : gonna start the book)과 '어떤 행위가 완료될려는 미래의 시간'(~이내에 : gonna finish the book)이란 意味해석과 'going in order to read the book'이란 해석의 syntactic ambiguity가 共存한다. (c)의 경우는 전치사 'on'의 'on the surface of'와 'concerning'이란 의미해석과 on Main Street가 'the girl'을 수식하느냐, 'a book'을 수식하느냐에 따른 syntactic ambiguity가 發生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투명동사 'seek'로 인하여 a book에 대한 de re 해석과 de dicto 해석이 또한 共起하고 있는 것이다.

II.7 여기서는 분류학상 다소의 문제성을 가진 實例들을 살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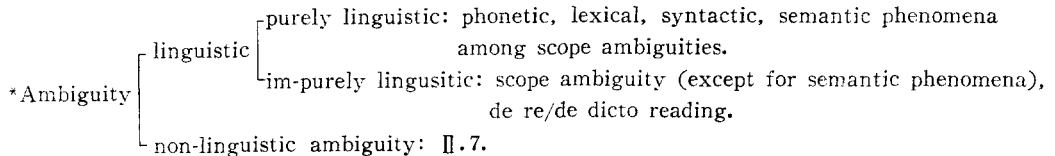
- (33) a. Grobman is a real genius (literal/sarcastic meaning)
- b. 잘 들 높다(참사/포소)
- (34) a. Why don't you ask her for help? (question/suggestion)
- b. Why not move to Chicago? (question/suggestion)
- c. How about going yourself a treat? (question/suggestion)
- d. 같이 가지 않겠니?(의문/제안/勧誘)

독립된 어떤 문장을 강하게 단언하게 되면 (33)의 경우처럼 字句的 意味外에 冷笑的 의미도 수반하게 된다.

(35) Grobman is a real genius, and so is Browning.

(35)는 (33 a)에 'do-so' test를 실시해 본 것인데, 이 경우 交叉解釋(字句的意味+冷笑的意味 or 冷笑的意味+字句的意味)이 不可能함은 물론 先行 접속문이 비록 냉소적 의미를 취할 경우라도 후속 접속문에 냉소적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다. 그 결과 (33 a)에는 字句的 意味만이 存在하는 것으로 되어 냉소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冷笑的 의미해석이 'do so' test를 적용할 수 있는 순수 언어적인 特性에 의한 것이 아니라, 言語外的인 맥락에서 기인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34)의 경우도 이를 ambiguity(=several underlying syntactic or semantic representation)로 보느냐, 혹은 vagueness(=a single syntactic representation corresponding to different state of affairs)로 보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나,⁽²⁴⁾ 이를 間接言語行爲(indirect speech act)의 實例로 보아 이 경우의 意味차이는 談話文法(discourse grammar)과 文章文法(sentence grammar)에 共히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II.7에서 論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non-linguistic ambiguity'라는 언어-외적인 類型 설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관찰된 事實을 근거로 필자 나름의 發生原因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II. 重義性 諸檢證法⁽²⁵⁾(Ambiguity Tests)

지금까지 發生原因別로 다양한 樣相을 보이고 있는 重義性的 諸類型과 그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24) Zwicky and Sadock(1975), pp.1-4, p.25.

정상적인 음조의 경우(34 b, c)는 suggestion을 의미하나, not와 about에 각각 대조장위가 가해지면 suggestion/question 사이에서 중의적이 된다.

(25) 여기서 중의성 검증법이라 함은 ambiguity의 존재유무를 판단해주는 그러한 의미로서가 아니고, 모호성과의 구분을 시도하면서 그 성격상의 차이를 규명해 주는 기준 또는 특성이란 의미를 밝힌다.

러나 ‘어떠한 경우가 重義的인가’ 하는 판단은 簡單치가 않으며, 이따금 고도의 言語에 대한 直觀을 필요로 한다.

(36) a. John *hit* the wall. b. She has *good* legs.

一見 句아 하나의 의미만 가능해 보이는 (36 a)가 主語의 intentionality 유무에 따라 重義的이 되고, healthy, beautiful, 혹은 well-functioning 등의 여러의미로 해석가능해 보이는 good의 경우는 오히려 模糊한(vague)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양자의 特性을 규명해 주는 檢證法 고찰에 앞서 우선 模糊性(vagueness)에 대해 검토해 보자.

Ⅲ.1 Kempson(1977)은 모호성의 發生原因을 다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²⁶⁾

첫째, 의미는 明白하나 指示對象이 모호한 경우(referential vagueness): 예를 들어 ‘town’ 보다는 ‘city’의 규모가 더 크다는 事實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A라는 지역이 ‘city’나 ‘town’이냐를 알아내는 근거는 해매려 쥘다. forest와 wood, house와 cottage 등의 指示對象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不分명하다.

둘째,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意味의 不正確으로 인한 모호성(indeterminacy of meaning): 前記한 ‘good legs’의 good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John’s book’의 경우 소유격이 갖는 의미 즉, i) the book John wrote, ii) the book he owns, iii) the book he has been reading, ... 등의 해석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意味는 明白하나 너무 一般的으로 규정하여 생기는 意味의 未分化(lack of specification):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 性別, 人種別, 연령 등이 애매하기 때문에 重義性과의 혼돈이 생긴다. ‘철수는 선물을 샀다’에서 ‘언제, 무슨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어디서, ...’ 등의 구체적 의미가 明示되지 않아 모호하게 된다.

넷째, 意味表示에 眞理조건的 離接을 뜻하는 ‘or’와 否定的 경우(disjunction in the specification of meaning)

(37) a. 회사의 응시자는 $\frac{\text{학벌이 좋거 } \overline{\text{나}}}{\text{P} \quad \text{Q}}$ 미남이어야 한다.

b. $\frac{\text{[철수와 영희는 친재(이다)]}}{\text{P}}$ 가 아니다.

Kempson에 의하면 이러한 種類의 모호성은 重義性과 가장 혼돈하기 쉬운데, 앞선 inclusive/exclusive reading의 경우와는 달리, (37 a)의 이점이 ‘나(=or)’의 해석은 i) 학벌이 좋지만 못생긴 경우, ii) 학벌이 없지만 美男인 경우, iii) 학벌도 좋고 美男인 경우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 (b)의 경우는 “論理學上 否定文은 Morgan 等式에 의해 or(=논리부호 V)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과 同一하게 된다”⁽²⁷⁾는 논리에 따라 (a)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어,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眞理值(truth valu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P	Q	P V Q
T	T	T
T	F	T
F	T	T
F	F	F

(26) R. M. Kempson(1977), *Semantic Theory*, pp.124-128.

(27) *Ibid.*, p.128. “negative sentence are logically equivalent to corresponding sentences containing ‘or’ by virtue of the de Morgan equivalence: $\neg(P \& Q) \equiv \neg P \vee \neg Q$.”

Ⅲ.2 하나 이상의 命題(proposition)를 나타내고, ‘1對多數의 통사 의미관계’(one-many relation between syntax and sense)를 갖는 문장은 重義的이라는 傳統的인 정의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眞이 되면 그 문장은 重義性을 띠게 된다는 ‘眞理條件式的 定義’(truth-conditional definition)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문(38)등도 重義的인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38) John Killed a bird today.

즉 문(38)은 主語의 意圖性 有無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intentional/unintentional 상황)에서 眞이 되므로 重義的이라고 주장하나(각주 9, 10 참조), 어떤 學者는 意圖性 문제는 文章의 眞리치 평가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기 例文은 意圖性에 관해 特定化(specification: murder/manslaughter)되지 않은 모호한 경우로 보기도 한다. 그러면 重義性和 모호성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각종 test 를 意味, 統辭의 順으로 檢討해 보자.

Ⅲ.2.1 意味的 檢證法(semantic test)

1) 의미차이의 정도에 依存(appeals to Semantic Differentiae): 문장의 의미차이가 重義性的의 필요충분 조건은 못되지만, 共通點이 별로 없고 서로 다른 복잡한 意味를 가지는 경우는 重義的이라 할 수 있다.

(39) a. My brother has good legs.

b. I saw her duck.

(39 a)의 brother 경우는 ‘나와의 나이,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結婚 또는 未婚...’ 등에 대해서 상당히 vague 하다. 그러나 비록 어떤 特定사항에 對해서는 unspecific 한 상태지만,⁽²⁸⁾ 이의 관계가 상당히 體系的이고(older/younger, married/unmarried), 意味상 또한 共通點이나 유사성이 많다. 그런데 반해서 (b)의 경우는 ‘a bird belonging to a woman’과 ‘an action performed by a woman’이라는 큰 의미차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重義的이라 할 수 있다.

2) 意味的 矛盾유무(contradiction): 어떤 文章이 그 文章의 형대상의 부경과 共起하여도 矛盾이 생기지 않으면 重義的이라 할 수 있다.

(40) a. That’s a dog. (canine/male canine)

b. I felt myself. (I felt the way I normally do/I ran my hands over myself)

a’. That’s a dog(개), but it isn’t a dog.(수캐)

b’. I felf myself(제 정신이 들다), but I didn’t feel myself.(몸에 손을 대다)

(40 a)의 경우는 特定한(specific) 의미(수캐)가 一般的인 의미(개)를 省略하고 있는 경우로 이를 缺性對立語(privative opposite)⁽²⁹⁾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意味는 肯定하고 特定한 意味를 부정하여야 하며 그 반대는 모순이 된다.

3) 類似語彙 代置時 意味的 變化(inconstancy under substitution): 유사 어휘로 代置할 때 意味가 일치 않고 변하는 경우는 重義的이다.

(41) He cooked her goose. (거위를 요리하다/남의 계획을 망치다)

(41)에서 ‘cook’을 ‘bake’로 대체하거나 ‘goose’를 ‘swan’으로 代置하면 熟語的인 意味는 없어진다.

Ⅲ.2.2 統辭的 檢證法(syntactic t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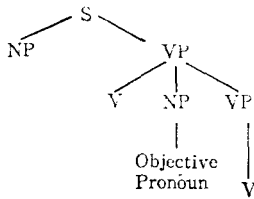
1) 相異한 統辭構造의 우연적 交叉(intersection of patterns): (39b)의 ‘I saw her duck’의 構文은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두개의 표층구조가 우연히 交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8) 문장이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特定化的의 유무정도(e.g. [±FACT])만이 상이하고, 그외는 비교적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자연언어는 그 特定事項에 대해 표시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3인칭의 경우 性(gender)에 대한 구분과는 달리 연령에 대한 특성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Atlas(1977), p.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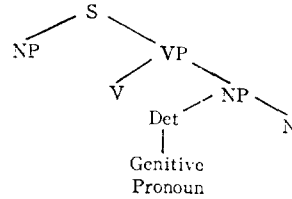
(29) ‘mother-father’ 등의 極性對立語(polar opposite)와는 비교되는 현상으로 互應(hypony)관계라고도 하며, duck(the species itself/a female duck)과 lion(the species itself/a male lion) 및 man(the species itself/a male man)등도 여기 속한다.

[참고] man 은 역사적으로 mind 와 관련이 있어 ‘the thinker’를 뜻하게 되면서, 性(gender)과 무관한 尊尊자체를 지녔으나 남성위주의 전통사태 속에서 ‘a male man’의 의미를 추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性의 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generic man 대신에 person 을 대체하여, chairperson, anchorperson, layperson 등의 낱말이 생겨났다. 흡사 과거에는 he로 받던 everyone, someone, anyone 등을 ‘he or she’나 ‘they’로 받는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39) b*.



b*.



2) 特殊한 統辭配分에 의한 檢證(special distribution): 共起制約(co-occurrence restriction)에 순응하는 자요를 추가해 보는 test는 비교적 응용성이 적으나, 추가자료가 의미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식으로 制限 配分될 때는 중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³⁰⁾

(42) a. The shooting of the hunters (hunters의 agent/patient 해석)

b. 불에 감힌 소녀 소방관 구출(소녀의 agent/patient 해석)⁽³¹⁾

(42 a)의 경우 時點副詞(point-time adverbial) ‘last week’를 頭部나 尾部 어느 쪽에 위치시켜도 중의성은 存在하나, 이를 名詞前修飾語(prenominal modifier)로 사용하여 ‘last week’s shooting of the hunters’가 되면 (a)에서 agentive 해석은 除外된다. 그 이유는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統辭의 特性에 따른 어휘의 特別配分에 현유된다. (b)의 경우도 ‘어제의’라는 소유격 시간부사(genitive time adverbial)를 추가하게 되면 ‘불에 감힌 어제의 소녀 소방관 구출’이 되어 소녀의 patient 해석만이 가능해지는데 뜻하다.

3) 變形에 의한 檢證(transformational potential): 모호한 文章은 變形의 적용을 받으면 模糊性이 상실되지 않으나, 重義的인 경우는 어느 한 意味를 喪失하게 되어 일반적이다. ‘I gave him Mary’s book’는 수동이나 의문변형을 받으면 의미의 변화가 없으나, ‘I kicked the bucket’의 경우는 수동변형에 의해 ‘The bucket was kicked by me’가 되어 중의성을 喪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文章接續과 句接續의 共存으로 인한 중의성 文章 ‘칠수와 영희는 싸움을 했다’의 경우도 접속사 이동변형을 받게 되면 ‘칠수는 영희와 싸움을 했다’가 되어 文章接續의 意味가 없어지게 된다.

4) 變形에 의한 檢證 對照적인 것이 동일한 의미(sense of identity)를 갖는 VP에 적용되는 動詞句 代置에 의한 것으로 ‘do-so’ test가 있다. S₁(NP₁+VP) and S₂(NP₂+VP)에서 S₁의 VP와 S₂의 VP가 同一한 때 S₂의 VP를 ‘do so’로 대체하는 方法이다. S₁이 중의적일 때 같은 狀況에서 ‘do so’로 대체된 S₂도 S₁과 同一한 의미로 중의적이면 S₁은 중의성을 띄고 있다는 證明이 되며, 그렇지 않고 交叉解釋이 가능한 경우는 모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43) a. Tom tossed down his lunch. (bolted his lunch/threw it to the ground)

b. Tom tossed down his lunch and so did Mary.

c. Harry kicked Sam, and so did Pete. (left or right foot)

(43 b)의 경우 ‘Tom은 음식을 삼키고 Mary는 내팽개쳤다’는 交叉解釋의 의미는 언어직관상 불가능하므로, (a) 문장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중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c)의 경우는 Harry가 왼발로 찼다고 하여 Pete도 왼발로 차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교차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Harry kicked Sam’이란 문장은 모호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do so’ test에도 심각한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교차해석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척도로서 이따금 의미적인 측면 외에 活用적인 考察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44) a. John shut up before Mary got mad at him.

b. The painter has done the sitting room.

a’. John_____ at him, and so did Tom.

(30) Zwicky and Sadock(1975), p.13.

(31) 김동익사의 소개물인데, 직업이 소방수인 소녀소방관(a girl whose job is firman)이라는 의미는 除外시켰다.

b'. The painter____ room, and so has the burglar.

위 (a)와 (b)의 경우는 의미적 측면이 아닌 文脈(context)에 의해 적절한 의미추론이 가능할 수 있다. 前者의 경우 Mary가 화가 나지 않은 경우와 실제로 화가 난 경우의 두가지로 해석되어 중의적이며, (a')에서 교차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의미구조에는 단지 하나의 'before'가 있으며 이것이 'and then'과 'and so~not'으로 풀이되는 서로 다른 두 文脈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do so' test의 경우 VP가 同一한 意味를 뜻해야 함에도 (b')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며 이는 화용적 사실에 그 原因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를 Kempson은 중의적이 아닌 unspecified (=vague)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oddity in sentence (44b') is not semantic but pragmatic, stemming from the unlikelihood of referring all the same time and in the same manner to the action of a painter and a burglar."⁽³²⁾

III.3 여기서는 學者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檢討해 보려 한다.

(45) a. *John killed a bird today*, and so did Susie.

b. *Mary has bought a dog*, and so has Bill.

c. *John and Mary left*, and so did Dick and Pat.

d. *John and Mary are married*, and so are Dick and Mary.

Lakoff의 주장과 같이(II.3.3 참조), (a)의 선행 文章이 意圖性 유무에 따라 重義的이라면 (a)의 경우는 交叉解釋이 不可하게 되나, Kempson(1977)등은 교차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모호적인(vague)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대립어 'dog'이 있는 (b)의 경우도 Atlas(1977)는 교차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Kempson(1977)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Zwicky and Sadock(1975)은 留保的인 태도⁽³³⁾를 취하고 있다. 한편 Lakoff와 Peters처럼 文章接續과 句接續이 가능하여 重義的으로 보는 (c)와 (d)의 선행 文章도 Dawty, Martin, Smith 같은 學者들은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c)의 경우는 교차해석이 가능하고 (d)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Zwicky and Sadock은 (d)의 경우 'anyone who is married is married to someone'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교차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자들간의 이러한 의견차이는 중의성에 대한 定義와 言語直觀上의 차이가 주요한 원인이 되겠으나, 부분적으로는 'do-so' test 자체와 중의성 및 모호성과의 성격에 기인하기도 하는 것 같다.

(46) a. My sweater is *light* (with a blue neck-tie)

b. My brother has *good* legs (for riding a bicycle)

즉 (46 a)가 중의적인 것은 'with a blue neck-tie'라는 어떤 특정요소를 생략한데서 비롯되며, (b)의 경우 'good'에 대해서 모호한 것도 자연언어가 어떤 특정요소, 예를 들면 'for riding a bicycle'을 생략한데서 起因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의성과 모호성은 III.2.1과 III.2.2에서 보듯 意味的 측면과 統辭的 측면에서 뚜렷한 성격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연언어가 특정사항을 생략한데서 기인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2) R. M. Kempson(1977), p.130.

(33) 주어의 의도성에 관한 경우는 'do so' test에서 교차해석이 가능하여 불특정화된(unspecified) 경우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but the intention of the speaker is not part of the semantic representations of sentences." (Zwicky and Sadock, p.26).

필자는 intentionality 유무에 따른 해석차이를 중의성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Lakoff가 제시한 Cupeno 언어의 경우나 kill 이 murder 와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는 사실의에 다음 예문들의 중의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 1) I (can) *smell* the perfume.

예 2) I *tasted* the salt in the soup.

예 3) She *reminded* me of my mother's funeral.

*Feel, taste, and smell can be used to indicate not only 'inert' perception, but also 'active' perception." (Leech, 1971, p.23)

Ⅶ. 重義性 諸解消策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의성은 문장이 실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脈絡(context)에 의해서 거의 해소되어 지나, 口語의 경우는 강제나 억양등에 의해서 그 의미가 명백해질 수 있다. 우선 多意語와 同音語의 경우 그 중의성을 해소시키는 장치를 간략히 보자.

도표 (5)

해 소 방 법	다 의 어
단/복수표시	brother <brothers (형제) brethern (동포)
어 뒤 주 가	fair-sized(big), fair-minded(honest)
강 세 표 시	cóntrast/contrást, cóntent/contént

도표 (6)

해 소 방 법	등 음 어
품 사 표 시	know/no, knows/nose, knew/new
gender 표 시	die Kiefer(=jaw)/der kiefer(=fir), der See(=lake)/die See(=Sea)
굴 꺾 이 미	ring(=make a circle)의 과거=ringed/ring(=sound loudly)의 과거=rang
철 자	knight/night, discreet/discrete

Ⅶ.1 언어의 의미는 주어진 맥락에 의해서 확실하게 결정된다는 주장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言語-外的인 맥락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 John이 차를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한 狀況下에서 "John saw Joan walking to the store this morning"을 發語하였다면 'walk'의 주어는 Joan이 되어 문장에 중의성이 생길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言語-外的인 경우는 除外하고, 언어적인 맥락에서 중의성이 해소되는 諸裝置 等を 검토하려 한다.

1) 語順의 변화에 의한 해소:⁽³⁴⁾

(47) a. 나는 책 한 권을 매일아침 읽는다. → 매일 아침 나는 책한권을 읽는다.

b. I knew that you had seen him before I met you. → Before I met you, I knew that you had seen him.

2) 句讀法(punctuation)에 의한 해소 : 말(speech)로서 중의적인 경우도 문자(writing)로 표현할 때는 구두법(apostrophe, comma, quotation mark, spelling, capital letter, underlining) 등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며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48) a. My cousin^(s)'s friend/My cousins^(s) friends.

b. I(e.g. 목사) won't wear any clothes_(s) which can distinguish me from my fellowmen(신자).

c. John said he's going. (he=John, he≠John) → John said, ("He's going"). (he≠John)

d. The [fláuər] was on the table → The(flour) is on the table.

e. John hugged Bill and then he kissed him. (he=John/he=Bill)

→ John hugged Bill and then (HE) kissed him. (HE=Bill)

f. John kissed Bill's wife. → John kissed (Bill's) w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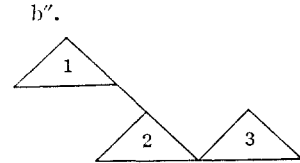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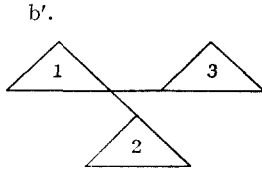
(34) 독어의 경우 'Nagel'이 주어 위치에 오면 'finger-nail'이나 'toe-nail'이 아닌 'metal-nail'을 의미하는 경우도 實例가 되겠다.

문장(f)의 경우 어느 구성소에 focus 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중의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중의성은 달이나 문자로 표현할 때 공히 그 解消策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對照強勢(contrastive stress)에 의해서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는 대문자를 쓰거나 밑줄을 칩으로써 가능하며,⁽³⁵⁾ 동시에 통사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생략된 요소 보충에 의한 해소 :

(49) a. Tom liked Dick better than Harry(did)

b. *Something tells me he's cheating and I can't do anything about it.* (he's 앞에 that 를
 1 2 3
 넣으면 b'의 해석/he's와 I 앞에 that 를 넣으면 b''의 해석)



4) 縮約(contraction)에 의한 해소 :

(50) a. Teddy is the man I want to succeed. (계승하다/성공하다)

→Teddy is the man I wanna succeed. (계승하다)

b. I am going to see my father off. (I intend to see /I am going in order to see___)

→I am gonna see___. (전자의 의미)

5) 새로운 單語나 句나 文章의 보충에 의한 해소 :

(51) a. The old men and women stayed at home→The old ___ while the young men went to war/The old men and women ___ while the young folks went dancing.

b. He decided on the boat.→He decided on the boat on the boat/He decided on the boat, not on the warship.

6) 共同指標化(co-indexing)에 의한 해소 :

相互指示關係(co-reference)에서 야기되는 중의성에 대해서는 프라임 부호(prime markings)를 사용할 수도 있다.⁽³⁶⁾

(52) a. Ann told her sister to fetch *her* purse. (중의적)

b. Ann' told her sister to fetch *hér* purse. (her=Ann)

Ⅳ.2 音調에 의한 해소 : 문자로서 중의적인 문장도 말로서 억양, 강세, 休止(pause) 등을 부여함으로써 해결되는 수가 많다.

(53) a. ²What are you wórking ³fór? (What are you trying to obtain?)

a'. ²What are you ³wofking for¹? (Why are you working?)

b. Kūmdongiga Ṣaramūl Ta Chugidani! (Surprising at his murder)

b'. Kūmdongiga Saramūl Ta Chugidani! (sorry for killing a person)

c. ²You'd ³better do it³ ↑ (threat)

c'. ²You'd ³better do ¹it ↑ (mere advice)

d. A: "I did it again" B: "What?"

(35) Fromkin and Rodman(1983, p.155), 문장 (f)를 구성요소에 따라 강조하면 다음 4가지 의미풀이가 가능하다.

John Kissed Bill's Wife

①의 강조 : Bill didn't/②의 강조 : rather than hitting/③의 강조 : not Dick's or his own/④의 강조 : not Bill's mother.

(36) Leech(1981), pp.158-163, Leech 는 co-reference 를 가리키기 위해 'an open-ended ('을 얼마든지 적을수 있는) set of prime markings (' , ' , '')를 도입하고 있다.

(53d)의 경우도 중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말로 표현되어 “²what³↑”이 되면 “What did you say? I didn't hear you”가 되고 “³what¹↓”이 되면 “what did you do? please explain”의 의미가 된다.

V. 結 論

언어이론에 論理學과 言語哲學이 도입됨으로써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중의성의 傳統的인 정의가 ‘서로 다른 狀況下에서 眞이 되는 것’이란 眞理條件式의 정의(truth-conditional definition)로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중의성의 유형과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원자 나름의 發生原因別 중의성 유형을 제시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mbiguity $\left\{ \begin{array}{l} \text{linguistic} \left\{ \begin{array}{l} \text{purely linguistic: } \text{II.1/II.2/II.3/semantic phenomena among II.4.} \\ \text{im-purely linguistic: } \text{II.4 (except for semantic phenomena)/II.5.} \end{array} \right. \\ \text{non-linguistic: } \text{II.7.} \end{array} \right.$

여기서 留意한 점은 II.6의 문장들처럼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유형이 함께 共起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중의성과 모호성이 意味(중의성=의미의 차이가 심하고, 부정의 경우와 동기하여도 모순이 없으며, 다른 어휘와 대치시 의미가 크게 변함; 모호성=의미의 차이가 비교적 적적이며, 부정의 경우와 共起하던 모순이 발생하고, 다른 어휘로 代置時 의미의 pattern이 크게 변하지 않음)와 統辭(중의성=서로 다른 유형이 交叉되어 있고, 變形時 의미가 변화하며, 交叉解釋이 不可; 모호성=from one underlying structure to one surface structure의 통사성격을 가지며, 변형시에도 의미가 바뀌지 않고, 교차해석이 可能)의 양면에서 뚜렷한 성격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나, 자연언어가 特定事項을 생략한데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갖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의성의 解消裝置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口語의 경우는 強勢, 高低, 休止 等에 의한 音調에 의해 해소가 가능했고, 文語의 경우는 語順變化, 下線, 綴字, 省略要素復元, 縮約, 新要素補充 等에 의해 해소가 가능했으며, prime marking에 의한 共同指標化(coindexing)에 의해서도 해소가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否定素와 數量詞의 適用範圍에 따른 중의성은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의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후후의 研究課題로 남긴다.

Bibliographies

- Atlas, J.D. “Negation, Ambiguity, and Presupposi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I. 1977, pp. 321—336.
- Bolinger, Dwight. *Meaning and Form*. Longman, 1977.
- Catlin, J.C. and J. Catlin. “Intentionality: A Source of Ambiguity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III (1972), pp. 504—508.
- Dillon, G.L.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Linguistic Semantics*. Prentice Hall, Inc. 1977.
- Fries, Charles C.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Inc., 1952.
- Fromkin, V., and R.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82.
- Givon, Talmy. “Opacity and Reference in Language” in J.P.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2. Semanar Press Inc., 1973.

- Horn, L.R.. "A Pragmatic Approach to Certain Ambiguiti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1981) pp. 321—358.
- Jung Sung-Jung. "Ambiguity and Scope," *Taegu Review Vol. 29*. 1980, pp.1—24.
- Kempson, R.M.. "Negation, Ambiguity, and the Semantics-Pragmatics Distinctio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9., No 2, 1984.
- Kempson, R.M..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Lakoff, G.. "A Note on Ambiguity and Vagueness," *Linguistic Inquiry* 1. 1970. pp. 357—359.
 _____ "Comments on Vagueness," *Linguistic Inquiry Vol. 5* 1973. pp. 549—550.
- Langendoen, D.T.. *The Study of Syntax*.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9.
- Leech, G..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gman. 1971.
 _____ *Semantics*. Penguin. 1981.
- Lyons, J..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Parlmer, F.R..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Postal, P.M.. "On the Surface Verb 'Remind'," Fillmore and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1, p.181.
- Quirk, Randolph et. al.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Semainar Press, inc., 1972.
- Smith, N. and D. wilson. *Modern Linguistics: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Penguin, 1979.
- Stageberg, Norman C. "Some Structural Ambiguities," Graham Wilson ed. *A Linguistic Reader*. New York: Harper & Row, Inc., 1967, pp.76—85.
- Ullmann, Stephen.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1962.
- Zwicky A. and J. Sadock. "Ambiguity Tests and How to Fail them," in *Syntax and Semantics Vol. 4*, ed. J.P. Kimball(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p. 1—36.